기사형 광고 4차 분석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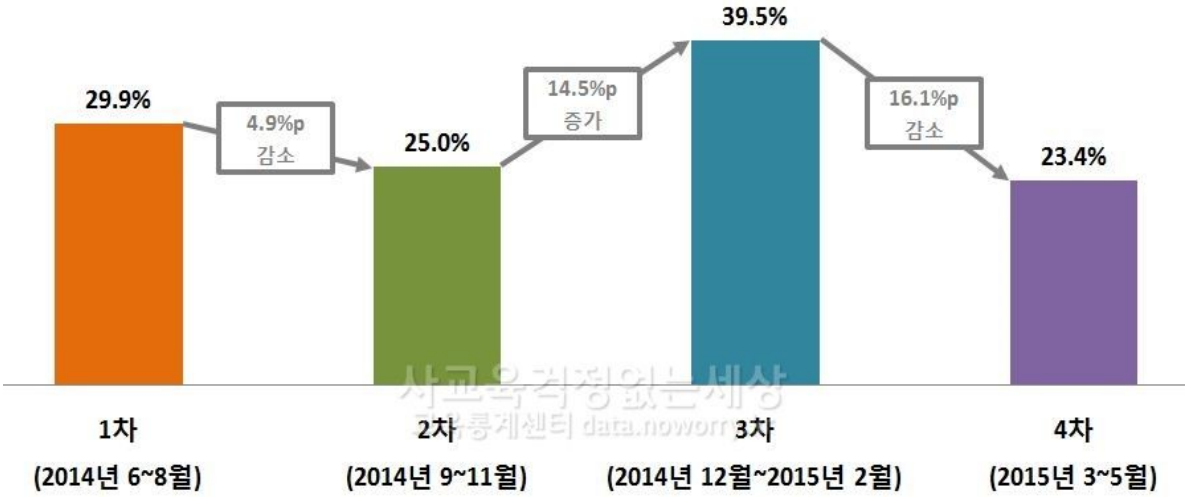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 섹션의 2015년 3월~5월까지의 기사를 4번째로 분석한 자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3월~5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전체 171건 중 40건(23.4%)에 달했고, 이는 지난 3차 분석에 비해 비율이 16.1%p 감소함.

4개 언론사의 교육 섹션을 통틀어 전체 기사 대상[1] 171건 중 40건(23.4%)에 달하는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4차 모니터링에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진행한 1-3차 모니터링에 비해 가장 낮은 건수입니다. 1차 63건, 2차 52건, 3차 73건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언론사의 자정노력이 아닌 시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이며, 다음으로는 동아일보입니다. 이 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가 36건(89.6%)를 차지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분석에서 조선일보는 단 한차례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도 계속 2등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교육걱정의 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림1] 1차~4차의 기사형 광고 비율 추이



1) 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사교육' 관련 기사와 상관없는 경우 제외

언론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동아일보를 제외한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체의 전체 62건 중 26건(41.9%)로 3차 분석 당시 55건에 비해 29건 감소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전체 21건 중 10건(47.6%)으로 지난 3차의 15건에 비해서는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세가 다음 분석 때에도 이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중앙일보는 전체 23건 중 4건(17.4%)의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어 지난 3차의 2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기사형 광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림2] 4개 일간지 전체 기사 중 기사형 광고 비율

■ 기사 내용상 분류 결과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21건(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도 10건(25.0%)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꾸준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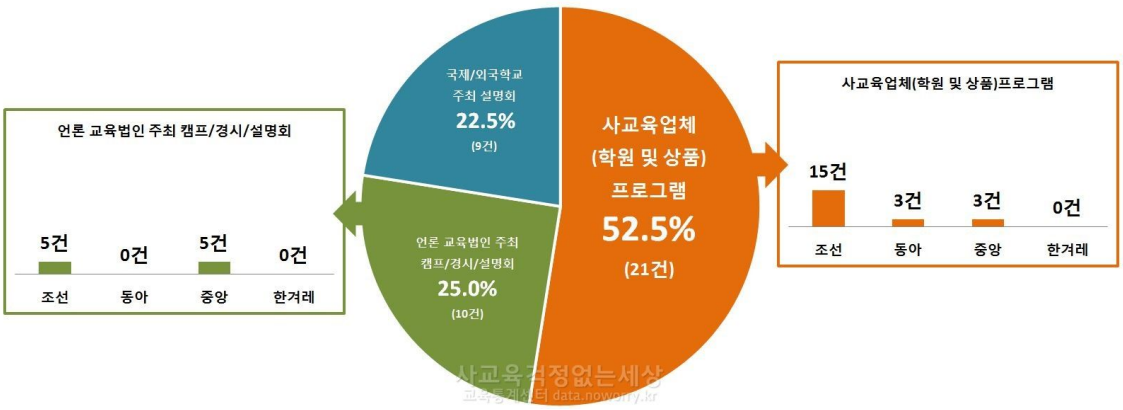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2]이 21건(52.5%)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10건(25.0%),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9건(22.5%)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15건(7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동일(3건)하였습니다.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건수 자체는 감소(14건→10건)했습니다만 이번 4차 분석에서는 비율상으로는 증가(19.2%→25.0%)하였습니다. 이번 4차 분석은 3차 분석에 비해 건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은 여전

2) 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사 교육법인이 5건으로 동일한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가 지난 분석에서의 4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동아일보에서도 집중적으로 자사 교육법인 홍보를 위해 교육지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기사 내용상 분류 비율



아래 [그림 4]의 기사를 살펴보시면, (주)동아이지에듀의 '필리핀 스파르타 영어캠프'와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어실력을 얼마나 어떻게 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의 학생만 공부하는 것에서 더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학부모도 매일 3시간의 맞춤형 영어수업과 주 3회 골프, 마사지, 쇼핑 등이 포함되어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영어캠프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커리큘럼인 것을 넘어서서 학부모까지 아이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교육법인 홈페이지[3]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엄마+학생1명의 비용은 738만원이고 엄마+학생2명은 1,047만원(왕복항공권, 개인용돈 불 포함)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가정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기사형 광고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조장하는 매우 질 나쁜 것입니다.

3) 동아이지에듀 교육프로그램 참조(http://dongaez.cafe24.com/base/eduprogram/junior/junior8.php)

[그림4] 언론 교육법인 프로그램 예시 : (주)동아이지에듀의 필리핀 영어캠프 소개 (동아 2015-03-24)

(주)동아이지에듀 주최 필리핀 영어캠프에 대한 소개임. 기자 바이라인이 달려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교육관련 기사라기보다 대놓고 홍보하는 내용임. 학생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원어민 밀착 수업 듣고 영어 자신감 키운다

초·중학생 대상 '필리핀 스파르타 영어캠프'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

영어공부,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지문은 길어지고 문제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새 학년, 새 학기 영어 공부하는 데 초·중학생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는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고려해보자. 24시간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고 실력도 쌓을 수 있다.

'스파르타 영어캠프'와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는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주최하는 영어캠프. 온종일 영어를 사용하며 즐겁게 지낼 환경이 갖춰진 필리핀에서 자녀의 영어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회다.

'스파르타 영어캠프'는 초3~중3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는 초1~중3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 25일(토)~8월 22일(토) 한 달간 필리핀 세부의 크라운리젠시빌라에서 열린다.

하루 8시간, 영어에 흠뻑 빠지다

스파르타 영어캠프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주 5일 하루 6시간씩 참가학생 수준에 맞춰 일대일로 영어를 가르친다. 영미권 출신 강사와 그룹 영어토론 수업도 2시간씩 진행한다. 영어 몰입수업으로 말하기·듣기 위주의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학습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한 달간 영어공부만 하면 다른 과목 학습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기우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인 명문대 멘토단과 매일 수학 공부를 한다. 멘토단이 학생 개개인의 수학실력을 파악한 뒤 수준에 맞춰 가르친다. 주 5일간 매일 영어학습 8시간, 수학학습 1시간을 하며 영어와 수학 실력을 동시에 다질 수 있다.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는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녀 또는 자녀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부모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스파르타 영어캠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듣는 참가 학생은 부모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하루 3시간의 수준별 맞춤형 일대일 영어수업을 듣고, 주 3회 골프 연습을 한다. 주 3회 태국 전통 전신 마사지를 받고 주 1회 대형쇼핑몰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예비 중1 아들과 함께 가족캠프에 참여한 이경미 씨(49·서울 강남구)는 "현지 원어민 선생님의 밀착 수업이 영어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캠프를 마치고 아들이 필리핀 항공사 직원과 대화를 했다. 나도 레스토랑 예약 등 기본적인 영어회화는 거뜬히 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늘었다"고 말했다.

현지문화 체험하며 견문 넓힌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는 필리핀 세부의 고급 리조트인 크라운리젠시빌라에서 생활한다. 스파르타 영어캠프의 경우 한국에 있는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자녀의 사진과 일과를 수시로 전달받는 '학부모 안심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두 영어캠프 모두 정규수업을 마친 후 전문 강사의 리더십 수업과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수업을 번갈아가며 듣는다. 참가 학생은 주 2회 현지투어 일정 때 △아일랜드 호핑투어 △시티투어 △암벽등반 등 다양한 현지문화 체험활동을 한다.

스파르타 영어캠프와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는 31일까지 조기등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청자 중 선착순 10명은 스파르타 영어캠프 참가비 50만 원 할인, 엄마와 함께 가족캠프 1인당 40만 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ongaezedu.com) 참조. 참가 신청 및 문의 02-538-8712

이승현 기자 hyunee@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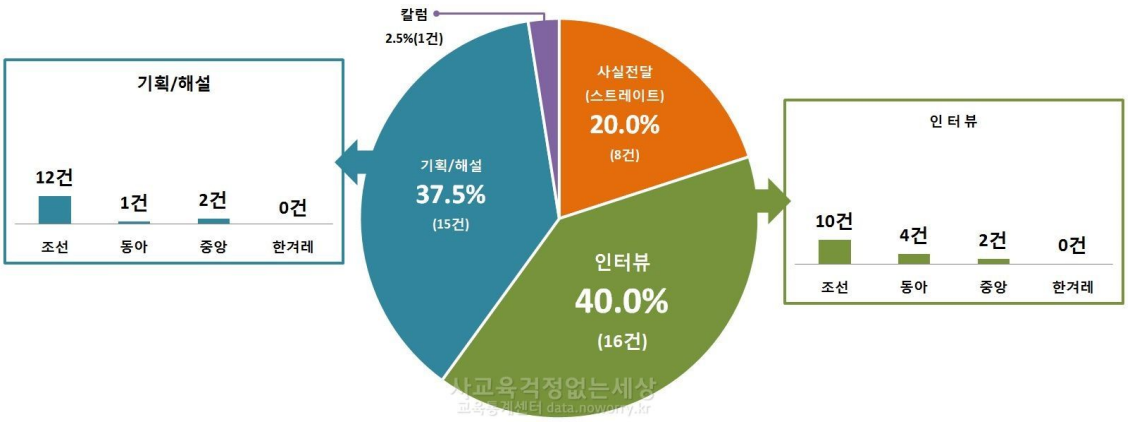
필리핀 스파르타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토론수업을 하는 모습.

■ 기사 형식별로는 인터뷰 기사가 16건(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획/해설 기사가 15건(37.5%) 차지함.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인터뷰 기사가 16건(4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획/해설 기사는 15건(37.5%),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는 8건(20.0%), 칼럼 기사는 1건(2.5%)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의 경우는 지난 3차 모니터링 결과와 건수는 같았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21.9%→40.0%)하였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16건 중 10건은 학원 관계자 및 국제학교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해당 학원 및 국제학교를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경우에는 관련 합격자 및 수상자를 인터뷰 하는 기사였고, 이는 또한 해당 학원 및 국제학교를 홍보한 내용이었습니

다.

[그림5] 기사 형식별 분석



인터뷰 기사는 흔히 '경험'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기사보다 더 설득력 있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사례만을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해당 사교육 업체 및 국제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든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교육업체의 홍보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형식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이 그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일부 소수의 학생만이 그 해당 사교육업체나 국제학교를 홍보하므로 효과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6]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6] 인터뷰 형식의 기사 예시 : 'NLCS 제주'에 대한 홍보(동아 2015-04-21)

작성자는 내부기자 이지만 내부기자가 각각 미국·영국대학에 '합격한 NLCS 제주 졸업생 2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임. 자세한 NLCS의 프로그램의 장점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내용임.

"해외 명문대 합격 비결? 학교생활이죠!"

합격생에게 듣는 NLCS Jeju의 경쟁력

노스런던컬리지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이하 NLCS Jeju) 졸업 예정생들이 해외 명문대에 대거 합격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NLCS Jeju는 165년 전통을 가진 영국 NLCS 본교의 첫 해외 분교로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연 국제학교다.

올해 NLCS Jeju 졸업 예정생들은 세계 명문대 중 많은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4월 중순 시점에서도 이미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스탠퍼드대 등을 비롯해 미국 버클리음대, 영국 런던예술대 등 예술 분야 명문대학에도 합격하거나 조건부 합격했다. 지난해 1기 졸업생에 이어 올해 2기 또한 뛰어난 진학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 1기 졸업생들은 영국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예일대, 뉴욕대,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 등에 합격했다.

NLCS Jeju Year13(국내 고교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한준규 군(미국 링링아트디자인대 합격, 영국 런던예술대 센트럴세인트마틴 조건부 합격)과 천유정 양(미국 브라운대 합격, 영국 옥스퍼드대 영어영문학과 조건부 합격)은 올해 NLCS Jeju가 배출한 대표적인 해외 명문대 합격생.

두 학생을 최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NLCS Jeju에서 만났다. NLCS Jeju의 어떤 프로그램이 그들을 해외 명문대 합격으로 이끌었을까.

한준규 군

창의력 사고력 키워준 IB 디플로마 수업

한 군은 NLCS Jeju에 입학하기 전까진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다. Year11(고1 해당) 미술시간. 한 군이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니? 이 작품엔 어떤 의미가 담겼니?"라고 물어보곤 했다.

"미술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간단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지요. 이런 훈련이 영국 대학입시에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한 군)

한 군은 Year12(고2 해당)부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 디플로마에 참여했다. IB 디플로마는 NLCS Jeju Year 12, 13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는 국제공인 교육과정.

NLCS Jeju에서 IB 디플로마를 이수하는 학생은 △언어와 문학 △제2외국어 △개인과 사회 △실험과학 △수학 △예술 등 6개 그룹에 있는 교과목 중 하나를 골라 총 6과목의 수업을 듣는 '식스폼(Sixth Form)' 과정에 참여하는데, 한 군은 예술을 선택해 미술 관련 과목을 들었다.

한 군이 지원한 미국과 영국의 대학은 입시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 식스폼 과정 미술수업에서 한 군이 그린 작품들은 고스란히 대학 입시의 포트폴리오로 활용됐다.

영국 대학 면접 때 면접관이 한 군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 "당신의 예술 철학을 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시켰는지 설명해보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IB 디플로마 수업에 참가해 온 한 군은 해당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미국 대학입시에선 컴퓨터 애니메이션 전공에 대한 제 열정의 증거자료로 학교에서 쓴 장문에세이를 활용했어요. 사람들이 만화 캐릭터의 표정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픽사,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도 직접 진행했었거든요. 장문에세이로 제 열정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한 군)

천유정 양

글쓰기 교과 외 활동으로 명문대 합격

천 양은 NLCS Jeju 학생들 사이에서 '문학소녀'로 통한다. 문학에 관심이 많아 교내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 Year11 때 교내 연극동아리 학생들이 천 양에게 연극의 극본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뒤로 천 양이 집필한 극본은 로맨스, 코미디, 호러 등 장르에 걸쳐 총 8편.

"좋아하는 것을 찾아 교내 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연스레 진학을 위한 자료가 됐지요. 미국 대학입시에선 나에게 의미 있던 교과 외 활동 약 10개를 써야 하는데 제가 했던 방과후 활동, 브라이언트 액티비티 활동 등을 빼곡하게 썼답니다."(천 양)

NLCS Jeju 학생들은 100여 개의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한다. 교과 외 활동은 크게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브라이언트 액티비티(Bryant Activities)' △과학, 지리, 수학 등 학업 분야를 주제로 토론하며 학문적 깊이를 높이는 '학회' △Year 12, 13 학생들이 스포츠, 음악, 토론 등 70여 개 특기활동을 하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나뉜다. 천 양은 방과후 활동으로 NLCS Jeju의 교지인 'ISLANDER(아일랜더)'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글쓰기에 특화된 활동을 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전형에선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제시해 놓고 이들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시험을 치르는데 천 양이 했던 활동들이 영국 대학입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교내 드라마 클럽의 극본 집필을 하기 위해 여러 문학작품을 탐독했던 경험, 교지 아일랜더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원들의 글을 감수했던 경험, 장문에세이를 쓰며 영국 대표 작가들의 문학작품에 활용된 표현법을 분석했던 경험 덕분에 영국 대학입시를 무리 없이 치렀어요."(천 양)

서귀포=글·사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NLCS Jeju 2015-16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개최

노스런던컬리지엇스쿨 제주(NLCS Jeju)는 2015-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를 5월 1일(금)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NLCS Jeju 캠퍼스에서 연다. 2015-16학년도에 Year4~10(국내 초3~중3), Year12(국내 고2)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다. 입학설명회에서는 NLCS Jeju의 입학 전형, 교과 과정, 교과 외 활동 등을 소개한다. NLCS 제주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할 수 있다. Year12의 경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입학 상담을 받고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NLCS Jeju 2015-16학년도 신입생 원서는 5월 8일(금)까지 받는다. 입학설명회 세부 내용은 NLCS Jeju 홈페이지(korean.nlcsjeju.co.kr) 참조. 입학설명회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signup.nlcsjeju.kr)에서 가능. 입학설명회 문의 064-793-8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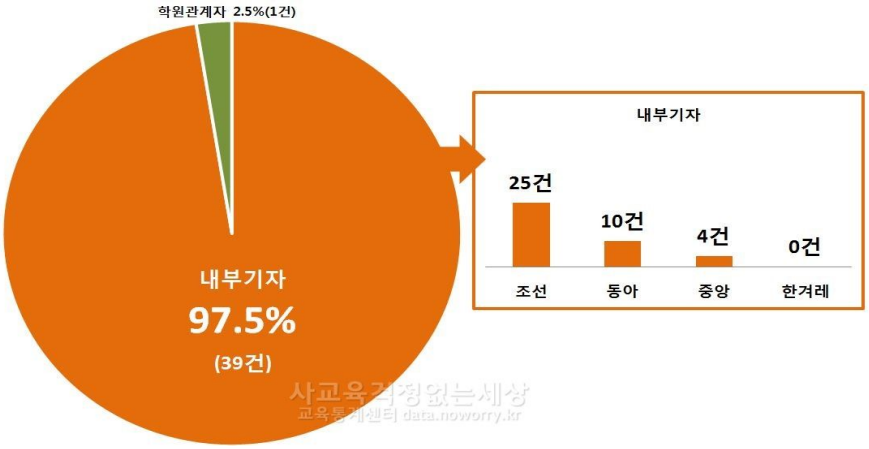
NLCS Jeju Year13에 재학 중인 한준규 군(왼쪽)과 천유정 양은 "NLCS Jeju 교육프로그램만으로 해외 명문대 입학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39건(97.5%), 학원관계자가 1건(2.5%)을 차지하여 여전히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39건(97.5%)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건(2.5%)을 차지했습니다. 내부기자의 비중은 증가(87.7%→97.5%)하였습니다.

기사형 광고로 분류된 기사 전체 40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 기자가 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림7] 기사 작성자별 분석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4차 분석의 경우 3차 분석보다는 그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나 내부기자가 여전히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칼럼'을 활용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칼럼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8]은 캠브리지코리아의 관계자가 '캠브리지A레벨'을 홍보하는 기사입니다. 칼럼이라고 하기가 무색하게 말머리도 그렇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캠브리지 A레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내신 성적이라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홍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사에 대한 검증 없이 '전문가 칼럼'이라고 칭한 언론사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림8] 학원관계자 작성 기사 예시: 전문가칼럼을 통해 '캠브리지A레벨'을 홍보 (조선 2015-04-27)

캠브리지코리아의 관계자가 전문가 칼럼이라는 말머리로 나열함. 그렇지만, '캠브리지 A레벨'이라는 것의 명시적인 표현도 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프로그램만을 홍보하고 있으며, 말미에 일정과 문의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전문가 칼럼 | 캠브리지 A레벨

내신 성적 낮아도 영국·미국 상위권 대학 진학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3등급인 23%에 들어야 한다. 미국 대학도 입시에서 고교 내신을 중요하게 반영하는데, 3등급 이하 학생들은 GPA로 환산했을 때 4.0만점에 3.0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 폭이 크지 않다. 낮은 내신 성적 때문에 해외 유학을 망설이는 학생이라면 '캠브리지 A레벨' 프로그램에 주목하자.

◇A레벨로 세계 명문대 입학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런던정경대 등은 IELTS 점수와 A레벨 3과목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 내신 등급이 5·6등급인 일반고 학생들과 내신이 좋지 않아 해외 대학을 포기한 외고 국제반 학생들도 '캠브리지 A레벨 프로그램' 수료 후 다양한 국가의 최상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A레벨을 이수한 학생에게 입학 시 높은 가산점을 준다. 학점도 최대 30점까지 인정해 준다. 실제로 고교 내신 5등급, SAT 1800점대인 학생이 A레벨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US NEWS & WORLD REPORT(2015)'의 세계 대학 순위 17위 미시간대 앤아버 캠퍼스나 뉴욕대 등에 합격했다.

◇해외 의대 진학도 A레벨로 가능

매년 국내 의과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유학 컨설팅 업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헝가리 등 의대 입학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헝가리나 우즈베키스탄 의대를 나온 의사 프로필을 보고 병원에 찾아가는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학생을 위해 A레벨과 별도로 의사적성시험인 'BMAT'와 'UKCA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A레벨 3과목과 의사적성시험을 통해 의대에 진학하기 때문에 국내 의대 입시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미국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학부에서 생물학이나 화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토플 90점대, SAT 1800점대를 받은 학생들이 A레벨 프로그램을 통해 'US NEWS & WORLD REPORT(2015)' 대학 순위에서 생물학 분야 미국 1위를 차지한 '퍼듀대', 화학 분야 5위인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텍사스오스틴주립대' 등에 진학했다.

이승주 캠브리지 코리아 미래전략기획팀장

'캠브리지 A레벨' 프로그램 일정

5월 18일 개강해 오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여름과 주말에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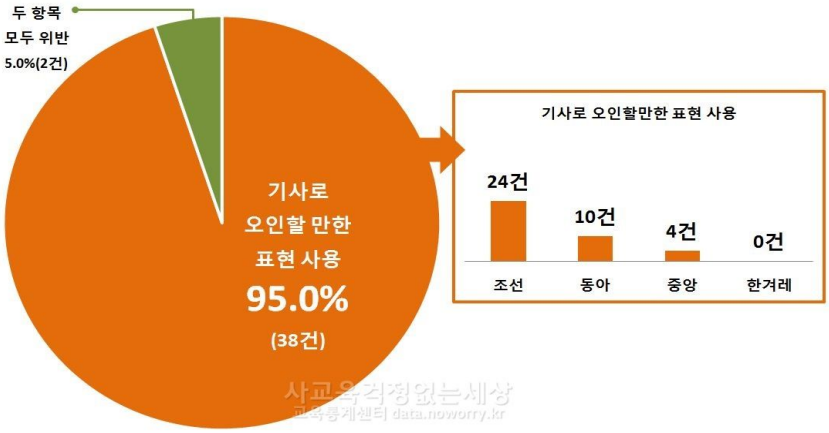
●문의: (02)575-8670

www.chosunglobaledu.com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38건(95.0%)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38건(9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2건(5.0%)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림9] 위반 사유별 분석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작성자가 기자로 되어 있으나,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 소개가 주 내용을 이루거나, 중간이나 말미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그림10]이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제목부터도 보면 10세 이하의 아이부터 수학 교육을 시켜야 자연스럽게 '수학 영재'로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는데, 이런 '영재'라는 표현 자체가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면서' 라는 표현을 통해 놀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지만 중점은 학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도 살펴보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어렸을 때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선행을 독려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부모는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법이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언론사는 이 법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앞서 해당 프로그램이 24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사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은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여과 없이 학원의 일방적 내용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림10] '기사로 오인 표현 사용'한 예시 : 미래엔에듀케어 '아담리수학'을 홍보함(중앙 2015-03-18)

기자 이름이 달려 있으나 기자가 기획한 기사가 아닌 '아담리즈수학'이라는 미래엔에듀케어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기사임. 기사 말미에 프로그램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

미래엔에듀케어 '아담리즈수학'

10세 이하 아이 '놀면서 배워야' 수학 영재로 커요

전민희 기자 skymini1710@joongang.co.kr

고보민(38·중랑구 망우본동)씨 딸은 이달 말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초2였던 지난해 수학과학 통합영재에 선발됐다. 고씨는 "7세 때부터 아담리즈수학에서 놀이수학을 배우면서 수학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힌 게 아이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담리즈수학은 교육출판기업 미래엔의 자회사 미래엔에듀케어에서 운영하는 수학교실이다.

아담리즈수학에서 아이들은 400여 종의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수학의 원리를 재밌게 배운다. 교구를 가지고 놀고, 게임하다보면 수학의 6대 영역인 공간·도형·규칙·측정·분류·수와 연산 개념을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분수 개념을 배울 때 사용하는 자석입체분수모형이 좋은 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자석 2개가 하나는 2개로, 다른 하나는 3개로 쪼개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다는 걸 안다. 하미선 미래엔에듀케어 교육개발실 실장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수학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모른 채 문제 풀이 위주로 학습했기 때문"이라며 "어렸을 때 생활 속에서 수학 개념을 익히면 고학년이 된 후에도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은 보통 4단계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교구를 이용해 수학 개념을 익히고, 교재에 나온 문제를 풀고,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 세기' 수업을 예로 들면 고대 로마 숫자 등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1단계다.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써진 쌓기나무를 통해 수 개념을 이해한 후에는 '1' '하나', 사과 그림 등 수를 각각 다르게 표현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수를 가려내는 게임을 한다. 3단계에서는 고대 숫자를 이용해 암호를 주고 받은 스파이들이 언제 만날지 맞히는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고, 4단계에서는 다시 그날 배운 수 개념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 고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스토리텔링 수학도 대비하고 융합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며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아담리즈수학은 카드·보드게임·입체도형 등 400여 종의 교구를 손으로 직접 조작하며 수학 개념을 익히게 돕는다. [사진 미래엔에듀케어]

400여 종 교구로 수학 원리 재밌게 익혀

연령별로 '놀이→논리→영재' 총 3단계 과정

집에서도 학습 이어가도록 매 수업 후 학부모 브리핑

학생 관리 시스템도 잘돼 있다. 입학 때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6개월 후 성취도 평가, 1년 후 총괄 평가 등을 통해 아이들 실력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매 수업 후 5~10분간 학부모 브리핑을 통해 아이의 학습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집에서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유도한다. 분수를 배운 날에는 집에서 케이크를 자르거나 사과를 깎을 때 2분의 1, 4분의 1 개념을 복습하게 돕는 거다. 고씨는 "그날 무슨 개념을 배웠는지,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했는지 아이를 가르친 강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4개월~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수학'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수학개념과 친해지게 하고,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논리수학'은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돕는 예비 초등과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영재수학'은 융합교과사고력을 발달시킨다. 아담리즈수학은 3월 봄학기를 맞아 전국 교육 센터별로 공개수업을 진행 중이다. 참여할 사람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된다.

문의 www.mathplay.co.kr, 02-6933-5361

<부록1>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방식

◎ **조사목적**: 사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는 기사를 분석해 관련 실태를 밝힘
(※본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사교육 홍보 기사는 사교육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여 구입 유도하는 기사임. '기사형 광고'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를 의미함.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고도 지칭하는데 광고(Advertising) 와 기사(Editorial)가 합쳐진 신조어임)

◎ **조사대상**: 2015년 3월~2015년 5월까지 3개월간 발행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지면. ※단, 광고 및 단신, NIE 지면, 대학 소개지면(4월 22일, 5월 20일 중앙일보 '열려라 입시'), 제약, 아파트, 식품 등은 일단 제외.

◎ **조사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강혜진, 김명희, 김은미, 김혜령, 김홍일, 서미영, 용은중, 이세희, 이주리, 주소영, 하영준, 허영준 이하 12명) 중 3월 12명, 4월 9명, 5월 10명 모니터링에 참여.

◎ **조사기간**: 2015년 4월 8일~2015년 6월 4일

◎ **분석기준**: 모니터링을 실행한 방식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전체 지면 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 제1조와 제3조에 위반(제2조는 관계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제외)된다고 여겨지면 이를 기사형 광고로 인식하여 분석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 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 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 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분석방법**: 모니터링단 중 과반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 이를 편의상 '기사형 광고'로 언급함.

<부록 2> 3월 모니터링 결과

번호	언론사	날짜	면수	제목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4	회원5	회원6	회원7	회원8	회원9	회원10	회원11	회원12
1	조선일보	2015.03.02	F03면	난도 낮춰 두 단계로 문제 구성, 수학 흥미 높인다	0	0	0	0	0	0	0		0	0		
2	조선일보	2015.03.09	F02면	인성 교재 50만부, 올해 학교·유치원에 보급			0	0		0	0	0	0			
3	조선일보	2015.03.09	F03면	인기 동화에 애니메이션 접목… 영어 흥미 높여	0	0		0	0	0	0	0	0	0		0
4	조선일보	2015.03.09	F05면	A레벨·IB 등 개인 맞춤 학제로 영미권 명문대 공략했죠	0	0	0	0	0		0	0	0	0		0
5	조선일보	2015.03.09	F07면	실력 있는 강사·내실있는 콘텐츠로 성적 향상 돕는다	0	0	0	0	0		0		0	0		0
6	조선일보	2015.03.16	F03면	개념·문제 링크 … 과목별 취약점 잡아낸다	0	0	0	0		0	0	0	0			0
7	조선일보	2015.03.16	F04면	日 수학 교육 노하우 집약… 차근차근 단계 밟으며 내신 정복	0	0	0	0	0	0	0	0	0			0
8	조선일보	2015.03.23	F02면	대학 합격률 100% 비결? 우수한 교사·글로벌한 환경	0	0	0	0		0	0	0	0	0	0	
9	조선일보	2015.03.23	F02면	직접 색칠하고 율동… 영어와 금세 친해져	0	0	0	0	0		0	0	0	0		0
10	조선일보	2015.03.30	F03면	편지 주고받고 첨삭 지도… 쌍방향 학습 가능	0	0	0	0	0		0	0	0	0		0
11	중앙일보	2015.03.04	S07면	“수행평가 비율 45%로 상향 전망 … 교과·비교과 통합교육해야”			0	0		0	0	0	0	0		0
12	중앙일보	2015.03.18	S07면	10세 이하 아이 ‘놀면서 배워야’ 수학 영재로 커요	0	0	0		0	0	0	0	0			0
13	동아일보	2015.03.24	D02면	스피치는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0	0			0	0	0		0			
14	동아일보	2015.03.24	D02면	원어민 밀착 수업 듣고 영어 자신감 키운다	0	0	0	0	0	0	0		0	0	0	0

<부록 3> 4월 모니터링 결과

번호	언론사	날짜	면수	제목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4
1	조선일보	2015.04.06	F03면	글로벌 환경·맞춤형 학제… 美·英 '톱 20 대학' 줄줄이 합격	0	0		
2	조선일보	2015.04.06	F03면	대입은 정보력 싸움… 배치표 맹신 금물	0	0	0	0
3	조선일보	2015.04.20	F02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 사고력 키우는 게 더 중요	0	0	0	0
4	조선일보	2015.04.20	F03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영주권까지 획득… 캐나다 실전유학	0		0	
5	조선일보	2015.04.27	F02면	아이비리그, 현지 고교 출신 선호… 나만의 스토리 있어야	0	0	0	0
6	조선일보	2015.04.27	F02면	캐나다 친구들과 뛰놀고 대화하니 영어가 쑥쑥!	0	0	0	0
7	조선일보	2015.04.27	F02면	졸업생 국내외 명문대 합격… 5월 8일 입학설명회	0	0	0	0
8	조선일보	2015.04.27	F02면	1대4 그룹수업으로 기본기 탄탄하게 잡아줘	0	0	0	
9	조선일보	2015.04.27	F03면	내신 성적 낮아도 영국·미국 상위권 대학 진학	0	0		
10	중앙일보	2015.04.15	S07면	농구하며 이차함수 배우는 과학 특화 국제학교	0	0	0	
11	동아일보	2015.04.07	C06면	개정교육과정 맞춰 어휘 쑥쑥 논리 쑥쑥	0	0	0	
12	동아일보	2015.04.07	C06면	미국·중국에서 수업 들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0	0	0	
13	동아일보	2015.04.21	C02면	창의력 논리력 중요해진 교육환경... 인문경시대회로 대비	0	0	0	0
14	동아일보	2015.04.21	C03면	해외 명문대 합격 비결? 학교생활이죠!	0	0	0	0
15	동아일보	2015.04.21	C03면	24시간 영어로 말하고 들으며 영어실력 UP	0	0	0	0

<부록 4> 5월 모니터링 결과

번호	언론사	날짜	면수	제목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4	회원5
1	조선일보	2015.05.11	F02면	기초 다지고 학습 습관 잡아주고… 영어 실력 일취월장	0	0	0	0	0
2	조선일보	2015.05.11	F03면	다양한 책 읽고 토론하는 한국 독서 교육에 베트남 큰 관심	0	0	0		
3	조선일보	2015.05.18	F02면	방과 후 커리큘럼 덕분에 체계적 공부	0		0	0	0
4	조선일보	2015.05.18	F03면	질 좋은 상품 최대 90% 할인 판매… 종합교육마켓플레이스 자리 잡겠다	0	0			0
5	조선일보	2015.05.18	F04면	내년, 개정 SAT 도입 연상 공부법 으로 기본 다져	0	0			0
6	조선일보	2015.05.18	F04면	한국 ACT 응시자 급증 국내 최대 ACT 센터 운영	0	0			0
7	조선일보	2015.05.18	F04면	SAT 만점자와 1대1 수업 읽기·쓰기 영역 확실히 잡아	0	0			0
8	중앙일보	2015.05.13	S07면	우리 아이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리딩하게 하세요	0	0	0		
9	동아일보	2015.05.19	C02면	토론하며 면접 실력 쑥쑥	0		0		0
10	동아일보	2015.05.19	C03면	영어실력 키우고 현지문화 체험하며 글로벌 리더로	0	0	0		0
11	동아일보	2015.05.19	C03면	베트남 독서특전사 길러 독서교육문화 전파할 것	0	0	0		